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한 도시 문제 개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20. 4. 23.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된 부천시 상살미 마을의 ‘공유주차·모빌리티 사업’을 지자체·민간·주민이 함께 참여한 모범사례로 소개하며, 지난 4월 24일 부천시청에서 참여기업 17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2019년 6곳을 대상으로 첫 예비사업을 실시하여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대표사업 시범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2월 본사업지로 3곳(부천·인천·대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부천시 상살미 마을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해제되기까지 겪어 온 원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에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대리 또는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 및 관리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 모델인 마을기업 ‘상살미사람들’을 설립하여 기업과 함께 공유서비스를 운영·관리하고, 부천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운영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예비사업 기간 중 공유 주차공간 280면 확보, 주차장 수급률 72%p 증가, 불법주차 41% 감소, 마을기업 운영을 통한 2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부천시는 향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기간 동안 지역 내 주차난을 겪고 있는 13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전·후

출처: 국토교통부, (2020), 주차문제로 몸살 앓던 부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처방으로 획기적 개선 ... 전국 확대한다. 4월 23일 보도자료.

* 공유주차와 모든 이동수단(공유주차 및 대중교통)을 통합 검색 및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